

# 형광도로·유튜버 협업... 촘촘한 소방 안전망 구축

## 전남소방, 다도해·항만·산단 등 맞춤형 특수시책 가동 현장 대원들 아이디어 반영... 화재 대응 사각지대 해소

전남소방본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화재 예방 시책으로 '맞춤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섬 지역과 산업단지, 항만 등 서로 다른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며 화재 대응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는 평가다.

1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각 소방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 특수시책'을 추진하며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도해 특성과 국가산업단지, 물류 항만이 밀집된 지역 구조를 반영한 조치다.

신안소방의 '빛나는 안전 길라잡이'는 대표적인 사례다. 도로 폭이 좁고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섬 지역 특성을 고

려해, 암태면 도창리 일대 3개 마을과 협력해 진입로 12곳에 형광 유도선을 설치했다.

해당 유도선은 야간 시인성을 높이는 형광도료를 활용해 바닥에 표시했으며, 소방차 종류별 진입 가능 여부를 색상으로 구분했다. 파란색은 진입 가능, 노란색은 진입 제한 구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출동 대원들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신속하게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등 235가구에는 화재감지기와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안전용품 지원에 취약계층 보호도 병행하고 있다.



신안군 발금면 대신마을에 도색된 구급차 및 범프차 분기점 표시된 도로.



광양소방서에서 설치한 반딧불 보이는 소화전 사진제공=전남소방본부

여수소방은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방식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월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맥스와 협업해 '소방 24시 체험' 영상을 제작, 약 98만 회 조회 수를 기록하며 젊은 층의 관심을 끌었다. 단순 홍보를 넘어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평가다.

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1000가구에 자동소화 및 터미널을 보급하고, 지역 사찰에는 소화기와 방염포 등 화재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광양소방은 대형 물류창고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재 ZERO 프로젝트'

를 추진 중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협약을 맺고 항만 배후단지에 '반딧불 소화전 위치표시등'을 설치했다. 아울러 트리트 가스 서지오와 나광진을 활용한 홍보 영상을 주요 교통 거점에 송출하며 안전 인식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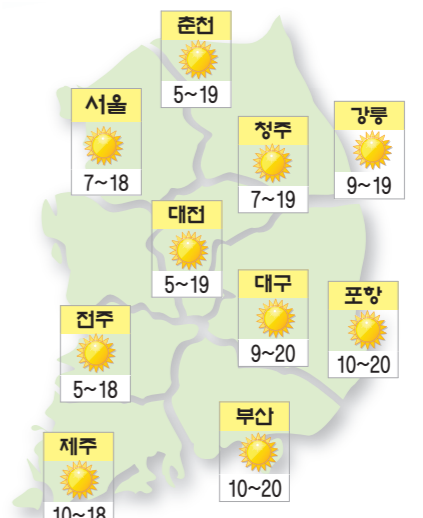
장흥소방 역시 의용소방대와 함께 릴레이 캠페인과 영상 홍보를 진행하며 지역 단위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전남소방의 정책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선 대원들이 체감한 문제를 출발점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나온 고민이 정책으로 이어졌다"며 "심마을부터 항만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맑음 06:19	달림 19:13
맑음 18:54	달림 06:05



광주	☀️	6~19
목포	☀️	7~15
여수	☀️	9~19
순천	☀️	7~20
구례	☀️	5~20
광주	☀️	4~18
신도	☀️	7~19
흑산도	☀️	7~15
진남	☀️	5~20
진도	☀️	5~16

목포	미물(고)	02:22 / 14:40
	샘물(저)	07:35 / 19:50
여수	미물(고)	09:21 / 21:43
	샘물(저)	03:08 / 15:18

## KTX 호남권 누적 이용객 1억1000만명 돌파

### 승정역 15배 증가·운행횟수 확대·이동시간 단축 효과

대한민국 대표 고속철도인 KTX가 4월 1일 개통 22주년을 맞은 가운데 호남권 누적 이용객이 1억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2004년 첫 운영을 시작한 KTX는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며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끌어 왔다.

여기에 SR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어, 향후 이용객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 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개통 초기인 2004년 하루 30회에 불과하던 열차 운행 횟수는 2026년 기준 50회로 늘어났다. 용산역에서 광주승정역까지 이동시간도 약 2시간 40분에서 1시간 50분으로 단축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용객 증가세도 뚜렷하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04년 6365명에서 2026년 2만 1257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해 5월3일에는 3만124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이용객 수를 달성하기도 했다.

주요 역 이용객 증가도 두드러진다. 광주승정역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04년 953명에서 2015년 9290명, 2026년 1만4249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목포역 역시 같은 기간 1928명에서 4702명으로 약 2.5배 늘었다.

이 같은 성과는 KTX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일일 생활권'을 현실화하며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봄꽃 살피보는 시민들 1일 오후 광주 북구 석곡동의 한 화훼 농원을 찾은 시민들이 집안 곳곳에 산뜻한 봄 기운을 불어넣을 꽃을 구입하기 위해 살피고 있다.

## 5·18 추모시 '부활의 노래' 초고 44년만에 발견

### 윤상원기념관, 광주시 유형문화유산 등록 추진

민중열사를 추모하는 시로 널리 알려진 문명란 시인의 '부활의 노래' 초고가 44년 만에 발견됐다.

1일 윤상원기념관에 따르면 최근 윤상원 열사의 생가에서 유품을 정리하는 도중 문명란 시인의 '부활의 노래' 초고가 발견됐다.

부활의 노래는 저항시인 문명란 시인이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1982년 발표한 작품으로, 5·18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

다가 전남도청 최후의 항전에서 신화한 윤상원 열사와 비슷한 시기에 작고한 광주 들불야학 창시자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현식을 위해 지어낸 시로 유명하다.

5·18을 다룬 최초의 기록서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제목 모티브가 된 시로도 알려져 있다.

시는 '돌아오는구나 돌아오는구나 그대들의 꽃다운 혼'으로 시작하며 1연 5행에 등장하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

어'라는 구절이 책 제목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발견된 초고에는 '죽음을 넘어'라는 표현은 포함돼 있지만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나타나지 않아 해당 문구는 이후 창작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윤상원기념관은 5월 전시콘텐츠를 통해 초고를 공개하고 광주시 유형문화유산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태영 기자

## 북구, 광주 최초 '아픈아이 돌봄센터' 개소

###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위치

광주 북구의 첫 번째 고향사랑기금 지정 기부사업으로 추진된 '아픈아이 돌봄센터'가 정식 개소됐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1층에 88㎡ 규모로 조성됐다.

임영진 기자 looks@

앞서 북구는 2024년 11월 '아픈아이 돌봄센터 조성 사업'을 제1호 고향사랑기금 지정 기부사업으로 선정하고 모금에 나서 한 달 만에 목표액 6000만원을 조기 달성했다.

이 예산을 활용해 지난해 말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놀이공간, 침대돌봄실 등이 포함된 아동 친화 공간을 완공했다. 이어 올해 2월 사회복지법인 우성나눔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준비를 마쳤다.

임영진 기자 looks@

## 영어유치원, 하루 3시간 넘는 주입식교습 금지

### 교육부, '유해교습행위 처벌' 학원법 개정 추진 36개월 미만 일절 금지...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36개월)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해 지식주입형 교습을 하면 안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광풍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인데, 사실상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주된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법론은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아예 법을 바꿔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민구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라며 "특히 만 3세 미만에는 선행 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다. 영어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서둘러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입법안은 의원 입법 형태

를 통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교육 관련 법안의 시행 시점이 통상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미 영유아 학원의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은 이뤄진 상태다. 이달 초 법안이 공포되면 10월께 시행된다.

교육부가 불법으로 못 박으려는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는 △비교·서열화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3세 이상~취학 전 대상 장시간(1일 3시간 초과·1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이다.

비교·서열화란 또그래도 학원생들의 학업 성취력을 서로 비교해서 소위 등수

를 매기는 행위다. 가령 영어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단어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를 원생 본인이나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인지교습'이란 교과목 위주(문자·언어·수리)의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주입식 교습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인지교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교구·교재의 성격, 공간 형태, 교수법의 주도성 등 제각각일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실질적 판정 지표를 담은 지침서나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어 인지교습의 예시로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와 같은 워크북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경우'를 들었다.

수학 인지교습 예시로는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리면 다시 반복시키는 경우'를 꼽았다.

이런 교습활동은 모두 '유해교습행위'로 분류,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영유아 학원의 과대·허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학원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학습자 모집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수강·교습 관련 상담과 설명 과정에서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으로 제재해 학부모 불안 심리 조장을 막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을 최대치로 부과(매출액의 50%)하는 방안을 신설했고, 기존의 과태료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 상시 감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른바 '학파라치'를 양산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전남대병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관리청, 전국 19곳 지정

전남대학교병원이 질병관리청의 '광주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선정돼 지역 내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체계적 통합 관리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1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전문기관 추가 지정 공모에 선정됐다.

전국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총 19곳이며, 전남권역은 지난 2024년 화순 전남대병원이 지정됐다.

이번 전문기관 지정은 광주권역에 희귀질환 특화 거점기관이 부재해 환자들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진단·치료-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한 '지역 연결형 진료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